

우리 삶을 구속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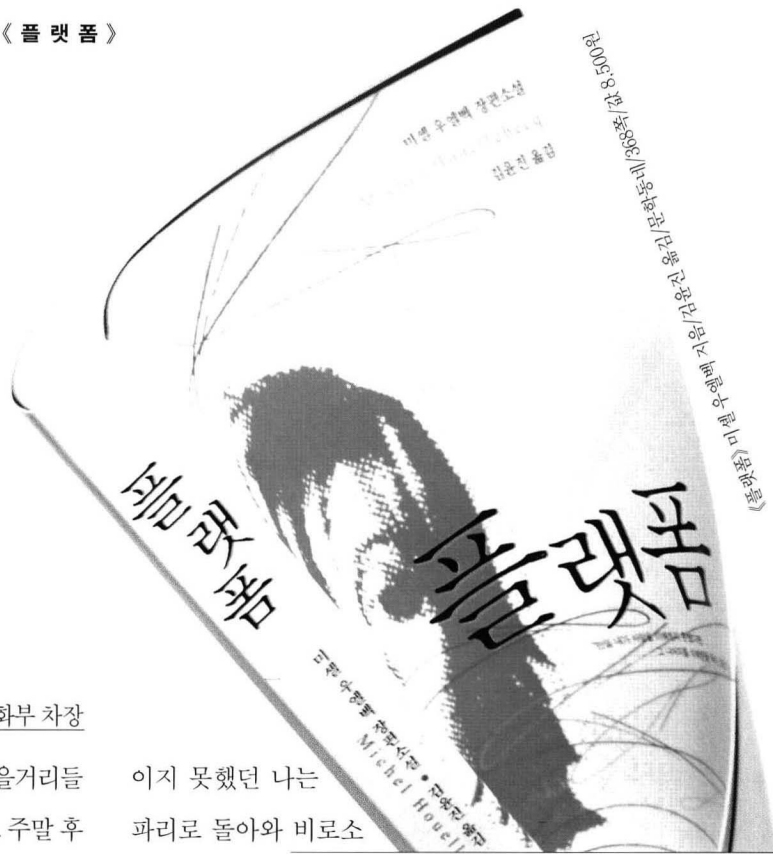
하중오 | 한국일보 문화부 차장

한동안 소설을 읽지 않았다.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읽을거리들에 대한 지겨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하면서 어느 주말 후배의 책상 밑 한구석에 처박혀 있는 책을 우연히 집어 들었다. 버릇대로 아무 곳이나 두어 군데 책장을 펼쳐 활자에 눈을 주어보고, 책날개에 박혀 있는 저자의 사진을 훑듯 살펴보고, 원작의 출간 연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책 첫머리에 조그맣게 인용된 글귀를 봤다. 대개 이런 인용은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한 마디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니까.

‘자신의 삶이 추악할수록, 사람은 그 삶에 매달린다. 그때 삶은 모든 순간들에 대한 항의며 복수다. - 오노레 드 발자크’

그렇게 《플랫폼》을 읽기 시작했다. ‘추악한 삶’이란 것을, 나이에 안 어울리게 머리는 벗겨지고 신경질적인 눈빛에다 입에는 냉소와 경멸이 가득한, 우엘벡이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가진 이 작자가 알기나 하나, 하는 것이 독서의 시발점이었던 셈이다. 이후 며칠 동안 이 소설의 절반 가량만 읽었을 뿐인데도 나는 만나서 책 이야기를 할 만한 이들에게는 모두 “《플랫폼》 읽어 봐. 엄청나더라”라고 술김에도 확신에 차서 떠들어댔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만난 이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거의 한결 같았다. “그거 포르노 야나, 그것도 하드코어던데.” 나는 그 동안 소설의 나머지 부분을 다소 고통스럽게 읽어나가고 있었다.

포르노랄 수 있다. 《플랫폼》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주인공인 나 미셸은 퇴근하고 나면 피쇼peep show(성인 동영상을 틀어주는 비디오방)를 찾아가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는’ 40대의 독신남, 프랑스 문화부의 미술담당 공무원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떠난 태국 패키지여행에서 ‘나’는 여행팀의 일원인 발레리를 알게 된다. 여행기간 내내 발레리에게 말 한 마디 제대로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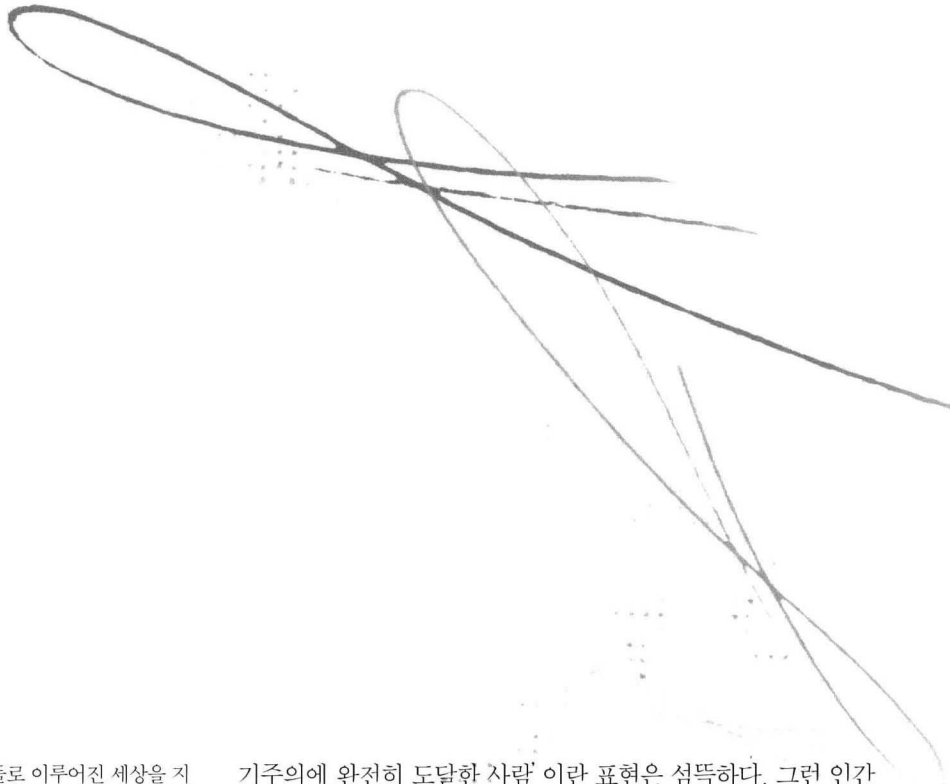
이지 못했던 나는
파리로 돌아와 비로소

그녀와 만난다.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믿을 수 없으리만 치 격렬한 쾌감의 전율에 감전된 내 페니스만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발레리는 나보다 10살 이상 젊은 여행사 직원이다. 이후는 그야말로 하드코어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나와 발레리의 섹스와 사랑, 여행 업계에서 승승장구한 발레리의 해외 섹스관광 플랜 수립, 그리고 태국으로 떠난 섹스관광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총기난사에 발레리가 먼저 죽고, 살아남았던 나도 죽는다…는 것이 줄거리다.

이렇듯 여행, 섹스, 죽음 등등 소재들의 세목을 보면 《플랫폼》은 흔한 대중소설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우엘벡이 이 소설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신랄한 ‘21세기 인간조건’에 대한 보고를 본 적이 없다. 우엘벡도 이 소설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과거 어느 순간에 읽었을 소설책 한 권보다 조금 더 기억을 잘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 소설책 한 권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삶의 기속羈束을 알고 있을까. 그의 소설은 개인과 사회, 인간의 머리와 아랫도리, 미시와 거시를 사정없이 헤집는다. 소설의 힘이란 그런 것이다.

‘자기 직업과 가족, 자신의 열정, 요컨대 그 자신이 인생의 구성요소라고 보는 모든 것들’이란 구절이 《플랫폼》의 앞부분에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이다. 2003년 프랑스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 성인 선남선녀에게도 직업은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를 불안하기만 한 것이고, 가족은 해체 내지 파괴되고 있으며, 열정이란 건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물건이 된 지 오래 아닌가. 그 모든 것이 불안한 주인공 미셸은 발레리와의 육체적 사랑에 집착할밖에.

“나는 게임, 자극적인 애정의 게임, 성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게임 속



에서 살고 있었다. 가벼운 욕망과 쾌락의 끝없는 순간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 나는 그것을 그저 확인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솔직하게 경험적으로 대하며 확인한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나는 전혀 할 수 없다.” 미셸의 이 지독한 무기력, 절망적인 나태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우엘백은 ‘비교 우위’라는 용어를 소설 한 장의 제목으로 삼아 그것을 은연중 설명한다. 그것은 시장원리다. 지구화한 자본주의다.

“오늘날 상황이 바뀌었다. 아름다움은 그 가치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나르시시적인 가치이다…돈은 이미 의견, 취향, 삶의 방식들에 완벽한 표준화를 보장해 주었다…사실 돈 말고 다른 것으로는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다…나의 유럽인 조상들은 여러 세기 동안 일하느라 고생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변화시키려 했으며…꿈, 진보, 유토피아, 미래를 만들어냈다. 유럽인들, 적어도 그들 가운데 몇몇은 여전히 노동을 계속하며, 때로 고생스럽게 일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흥미 혹은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한 신경증적 집착 때문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 역사를 바꾼다는 타고난 권리에 대한 순진한 의식은 사라져버렸다…내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지성과 일에 대한 열정을 나는 분명 다 잃었다.”

작가 우엘백은 태국에 닥친 외환 위기를 ‘이백여 년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에 닥친 비극’이라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IMF 사태가 촉발한 사회 변화, 그 후유증은 어떻게 비유될 수 있을까 궁금하다.

미셸 같은 인간의 절망은 바로 그 스스로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삶의 조건을 안다는 데서 온다. “다가올 죽음을 의식하는 퇴폐적인 유럽인으로서, 그리고 이기주의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런 것을 마다할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미셸은 의식하고 있다. ‘이

기주의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이란 표현은 섬뜩하다. 그런 인간에게 일이, 가족이, 열정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미셸에게도 발레리는 생의 ‘두 번째 기회’ 처럼 여겨진다. 눈물겨운 일이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도 미셸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발레리와 사랑으로 “단순히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에 겨워하는 순간”(베트남 스님 틱낫한이 들려준 불가의 ‘네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하는 노래가 생각난다)을 느꼈던 미셸, 절망적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을 만나 생을 버려나갈 희망을 가졌던 그의 꿈도 결국 어이없는 돌발상황 앞에 부서지고 만다. 죽어가면서 미셸은 되뇌 뿐이다. “내 아파트는 새로운 거주자에게 임대될 것이다. 난 잊혀질 것이다. 아주 빨리 난 잊혀질 것이다.”(이 구절은 또한 시인 최승자의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의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구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을 읽는 것은 발자크가 말한 추악한 삶, 향의이자 복수로서 더욱 더 그 삶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고통스런 확인이다. 죽어가는 미셸이 “삶을 포기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접촉은 상인들과의 접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끔찍한 세상에 대한 묵시다.

우엘백의 소설은 《플랫폼》 이후 두어 권이 더 국내에 번역돼 나왔다. 그 책들을 구해 놓고도, 나는 표지만 뒤적거릴 뿐 오랫동안 읽을 엄무를 안 내고 있다. 우엘백이 “책 없이 사는 건 위험하다. 그저 사는 데에만 만족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것을 감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라는 독서론까지 《플랫폼》에 쓰기도 했지만 말이다. **한**